

해외 주요 뉴스

이번 주 해외뉴스는 일본에서 연성법 형태로 제정될 예정인 「책임 있는 공급망 내 인권 존중을 위한 지침안」을 소개합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 프랑스의 경우 8월 22일부터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산업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징수하는 법이 시행되었다는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01

(일본) 지난 8월 초,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책임 있는 공급망 내 인권 존중을 위한 지침안」을 발표함. 8월 29일까지 약 3주간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추후 입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나 현재까지는 9월 내 연성법 형태의 기업 실사 지침으로만 최종 공개할 예정임.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이번 지침을 수립하였고, 궁극적으로는 구속력 있는 법제화를 목표로 삼고 있음 [관련 기사](#)

- 지난 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기반으로 생산된 면화 사용으로 미국, 프랑스 등으로부터 압류, 제재를 받은 유니클로 사례 이후 일본 정부는 약 3,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인권실사 조사에 착수했음. 조사 결과 일본 상장기업 절반이 인권실사를 하지 않았으며 그 중 30%는 실사의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했음.
- 공급망 내 인권 리스크에 이미 대응하고 있는 미국, 유럽 기업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제산업성에서 지난 8월 기업 공급망 인권실사 지침안을 공개함. 이는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인권 전문가와 4차례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것임.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추후에도 일본 기업의 미국, 유럽 정부의 인권실사 규제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경우, 해당 지침을 법제화할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힘.

02

(미국) 지난 8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함. 또한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수소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현재 16% 수준에서 2026년에는 35%, 2030년에는 68%로 각각 끌어올린다는 중간 목표를 설정함

1

- 이번 조치를 통해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이 달린 차량은 일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만 판매를 허용할 방침임. 단, 이러한 정책은 신차 판매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차를 보유하거나 중고차로 판매가 가능함.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음.
- 지난 6월 유럽연합 또한 2035년부터 휘발유나 경유 등 화석연료로 구동되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중지하는 데 합의함. 유럽의회는 지난 6월 8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100% 감축해야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성능 표준 개정안'을 승인함.

03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지난 8월 22일부터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산업 광고를 금지하고, 내년 6월부터는 천연가스 광고도 금지할 계획임 [관련 기사](#)

- 이를 어기는 업체는 벌금 최소 2만 유로(약 2600만 원)부터 최대 10만 유로(약 1억 3000만 원)를 부과해야 하며, 재범 시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함. 다만 금융 투자와 통신 관련 협찬 및 재생에너지 또는 바이오가스 함량이 50% 이상인 연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준에 부합하는 연료 등에 대해서는 광고가 허용됨.
- 그린피스 및 환경단체 20곳은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화석연료 ▲휘발유 자동차 ▲비행기 ▲비현실적인 탄소 감축 방법 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석유회사의 광고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2021년 10월에 시위를 벌인 바 있음. 독일 암스테르담시의 경우 2021년부터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항공산업, 차량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제품을 일정 공공시설에서 광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시행함.

국내 주요 뉴스

이번 주 국내뉴스는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과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자의 직접 전력 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소개합니다. 또한 제정될 예정인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대해서도 전해 드립니다.

01

지난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이하 '실무안')이 공개됨. 실무안은 2030년 국내 전력공급비중과 관련해 원전은 계속운전, 신규 원전 반영으로 발전량 비중 32.8%(제9차 25%)로 상향하고, 신재생은 주민 수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1.5%(제9차 30.2%)로 조정하는 것으로 전망함 보도자료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 단위로 15년 동안의 전력수급 계획을 정하는 법정 계획임. '36년 최대전력수요는 117.3GW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2022년부터 연평균 1.4% 증가를 전제로 함. 지난 9차 계획에서는 전력시장 내 수요만을 전망했다면, 금번 10차 계획에서는 총수요 전망체계로 전환하여 전력시장 내 수요뿐만 아니라, 한전PPA, 자가용 태양광을 포함한 총수요를 전망한 뒤 자가용 발전량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준수요를 산정함으로써 태양광발전의 증가에 따른 변동성에 대응하고자 하였음.
- 실무안 내용 및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산업부는 총괄분과위원회의 위 실무안을 바탕으로 (i) 전략환경영향평가, (ii) 관계부처 협의, (iii) 정부초안 마련, (iv) 국회 상임위 보고, (v) 공청회, (vi) 전략정책심의회로 구성된 후속절차들을 거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에 확정할 예정임.

02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자의 직접 전력 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보도자료

-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동일하게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하였으며, 전기사용자의 규모는 당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300kW 이상으로 확대함.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반대로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함.

3

- 일정규모 이상(20MW)의 설비는 발전량 중 일부를 직접PPA로,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분할거래’를 허용함. 또한 직접PPA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임.

03

정부가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을 제정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에 대응할 예정임. 해당 법안을 근거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에 재정·세제·금융지원도 추진할 방침임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월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함. 정부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양분화되고, 미국이 인플레이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위기에 대한 지원·대응 방안을 부처별 법률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함.
- 이러한 기본법 제정은 국정과제(‘22.5) 및 경제정책방향(‘22.6) 등을 통해서도 발표된 바 있으며, 향후 정부는 경제 단체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애로나 건의 사항 등을 최대한 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임.

ESG 센터 주요 소식

- [인권과 ESG ③] 국내 기업 통계 성과에 집착...질적 성장 멀었다
- ESG 경영, '지배구조' 분야 잘하는 기업의 3요소는 바로 '이것'
- [로펌 공익단체 탐방] 사단법인 두루... 공익법 생태계 조성, 인권 사각지대 발굴

법무법인(유) 지평 ESG센터

임성택 ESG 센터장 / 대표변호사	T. 02-6200-1746	E. stlim@jipyong.com
민창욱 파트너변호사	T. 02-6200-1841	E. cwmin@jipyong.com
정영일 경영연구그룹 그룹장	T. 02-6200-1803	E. yichoung@jipyong.com
지현영 변호사	T. 02-6200-1913	E. hyjee@jipyong.com